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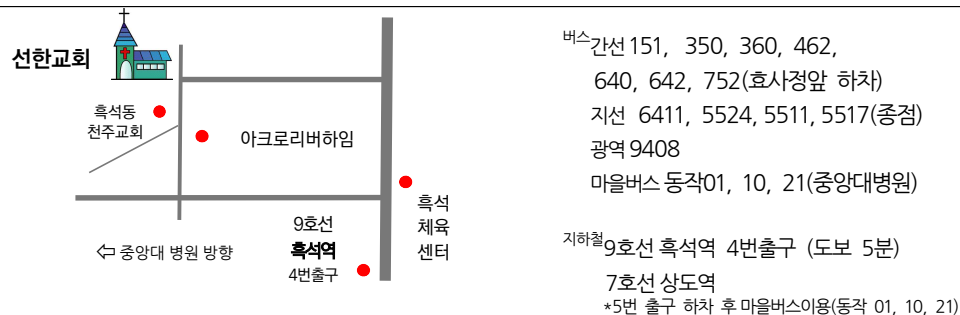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전 1:00 드보라회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전 3:30 에스더회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협력 선교사	강 성 규 (러시아)
	교육목사 권 인 혁	국 내 선교사	오 인 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 4:4-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1장 (통일찬송가 46장)	
교 독 문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찬 양 과 경 배	442장 (통일찬송가 499장)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요한일서 2장 12절 ~ 14절	
설	교	영적인 삶의 성장단계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김현석 김희상 박대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요 일 후	오후 3:30	
	예배장소 : 본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말 씬	대 표 기 도	백미경 집사
	성경오류논쟁 9강 (마2:13-15, 눅2:21-22)	
	아기예수 행적문제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롬 3:19-26)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선한교회 찬양축제

- 일시: 2019년 10월 27일 오후예배(3시 30분)

- 참가 대상: 부서별(필수), 셀별(자원), 가정별(자원)

- 시상 범위 및 내역: 각 영역별 금상, 은상, 동상(총9) +인기상(1)

금상(10만원), 은상(7만원), 동상(5만원), 인기상(5만원)

- 심사기준: 다인원, 음악성, 창의성, 준비성, 호응도
2. 수 험 생 기 도 회

10월 14일(월)부터 11월 13일(수)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 11월 14일(목)은 수능 당일로 종일기도회로 모입니다.

※ 수요일과 금요일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수험생: 이정진, 이찬희, 손주은, 손진강, 양예림, 이서윤, 홍성호, 홍성원

10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10월 6일		성경지리특강			유신웅 장로	
10월 13일		야 외 예 배			다 함 께	
10월 20일		성경오류논쟁 9강			임춘배 목사	
10월 27일		찬 양 축 제			다 함 께	
2019년 성경강론 범위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이사야 34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36장	이사야 37장	이사야 38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한주간이 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처럼 그분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가정예배] 허물을 들추지 말라

찬송 :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통 278장)

본문 : 창세기 9장 18~29절

말씀 : 카페에 앉아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무리가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흉을 보았습니다. 여태껏 하하 호호 웃으며 놀던 친구들이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친구의 흉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듣기 민망했습니다. 그 친구가 돌아온 이후 화장실에 가는 사람을 더는 보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랫동안 홍수로 떠돌던 노아와 가족들이 아라랏 산에 도착한 후 방주에서 짐승들과 함께 물이 빠진 물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정착하였던 노아와 가족들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수확하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신 노아가 그만 취해 장막에서 잠이 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알몸으로 말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인 함이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인사불성이 되어 잠든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함은 밖으로 나가 형과 동생을 불러서 아버지의 흉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옷으로 가려드리고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지만, 아비의 허물을 흥본 함은 저주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았으니 노아의 화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타인의 흉이나 허물쯤은 너무 쉽게 떠벌리는 사람을 봅니다.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추측성' 혹은 '지라시'라는 말까지 붙여 온 세상에 떠돕니다. 근거 없이 남을 헐담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실이라도 공개적으로 퍼트리면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물을 들추는 일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와 허물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메랑의 원리'와 같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판은 심판으로도 번역되는데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의 관계는 단순히 가족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의 허물을 들추어낸다면 그 공동체가 어찌 건강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은 묻어둔 채 형제의 죄와 허물은 들추어낸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난한 그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노아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향해 칭찬해 봅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말씀

제 목

영적인 삶의 성장단계 (요일 2:12-14)

서 론

하나님과의 사귀를 위한 연속적인 권면을 하던 중 다른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1. 삽입된 권면

- (1) 설명해 오던 내용을 잠시 멈추고 위로와 격려를 위한 권면을 함
- (2)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①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 ②각 영적 단계에게 필요한 교훈

본 론

2. 교훈

- (1)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12).
- (2) 우리에게는 죄를 극복할수 있는 힘이 주어졌으므로 싸워 이겨야 한다(13,14).
- (3)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더욱 자라가야 한다(13,14).

결 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깊은 사귀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유신웅 장로
헌 금 위 원	김현석 김희상 박대수	김현석 김희상 박대수
오후예배 기도	백미경 집사	임대원 집사

매일 성경 강독		열방에 임할 화와 성도의 견고함	날짜 : 10월 21일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 통일 찬송가 91장)		
통독	이사야 34장		
본문 내용	본장은 여타의 어떤 장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피와 불 또는 야수들의 울부짖음 등으로 가득 찬 심판의 무자비한 장면을 충격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앞의 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앗수르에게만 적용시켰었는데, 이제는 모든 열방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침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그 심판이 어떤 상황으로도 묘사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본장에서 이사야는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열방이 당할 심판에 대한 상황 설명(1-15절)과 함께 이 예언이 임하게 되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거듭 말함으로써(16-17절), 심판의 진정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 심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유대의 목시적인 종말을 잘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다른 장에 비해 법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된 것이나 극단적인 단어들 많이 구사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참혹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에돔으로 대표되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를 괴롭힌 데 대한 보응이라는 면이 본장에서는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세상 악한 세력 심판 예언 (1) 34-35장은 여호와와 심판과 구원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멸망의 심판을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함 (2) 1-15절: 에돔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반역적이고 사단의 세력에 속해있는 모든 열방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과 그 심판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 언급 (3) 16-17절: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예언의 성취와 이사야 자신의 모든 예언과 전체 성경 예언의 필연적인 성취를 확신하는 내용 언급 (4)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 날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므로 악인이 흥왕할 때, 의인이 애매히 박해 받을 때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말고 인내로 참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자.		
핵심 단어	8절. 보수할.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찬양과 기도	내가 주인 삼은 / 저 장미꽃 위에 이슬 (442장/통 499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한국 사회는 지나친 경쟁주의와 일등주의로 인해 성공을 돕는 자기 계발서가 각 분야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주의와 일등주의는 한국 사회를 피로사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일과 삶이 균형 잡히지 못한 채 상대적 박탈감, 극심한 우울증, 수면 장애, 약물 중독 등 많은 사회적 병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현상은 열심히 일한 뒤 편안히 안식하고 쉬는 것조차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하고, 1년 재배하고 산성화 때문에 쉬어야 함에도 화학 비료를 통해 2년, 3년 계속해서 경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양계장에서도 더 많은 알을 생산하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국 현대 사회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결국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경작하고, 불빛이 꺼지지 않는 생산 시대에 사람들은 수면 부족과 우울증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안식 제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노동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이 땅과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다는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나누기	레위기 25:1~12	
묵상포인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에 담긴 공통적인 교훈은 땅과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년과 희년 정신을 망각하면 인간은 탐욕과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모든 사람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 형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라고 명하셨나요?(1~7절)	
적용하기	하나님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안식년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히스기야의 치유	날짜 : 10월 25일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 통일 찬송가 470장)		
통독	이사야 33장		
본문 내용	본장은 히스기야의 삶의 흥미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한 일들을 기억해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1-3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다(4-8절). 히스기야는 치료가 약속된 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찬양을 지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강하게 해주셨다고 감사 했다(9-20절). 히스기야는 마침내 회복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병 치료에 약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그 약의 효과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믿음을 보여 주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21-22절).		
생각해보기			
1	이사야의 생명연장 (1) 이 사건은 BC.701년 산헤립의 유다 침공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임(제39장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일종의 삽입장) (2) 1-8절: 병이 든 히스기야를 방문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죽음을 예언하자 생명 연장을 위해 히스기야는 절박한 간구를 드림. 이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서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 더 연장 받았고, 또한 앗수르로부터의 보호 약속과 그와 관련하여 아하스의 일영표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리는 기적적인 증거를 함께 주심 (3) 9-22절: 병고침과 생명을 연장 받은 후에 죽음에 직면했었을 때의 자신의 심정과 절박한 간구, 생명을 연장 받은 후의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그리고 히스기야의 치유와 회복의 증거에 대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질문한 내용을 기록함 (4) 히스기야가 한창 왕성하게 일할수 있는 중년의 때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듯이 우리 인생들은 언제 그 끝을 맞이할 줄 모르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핵심 단어	17절. 등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말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새 시대의 광명		날짜 : 10월 22일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273장 / 통일 찬송가331장)			
통독		이사야 35장			
본문 내용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전운에 싸여 고통을 당할 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종말론적 새 나라의 환희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본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절망의 흑암 속으로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스며들어옴을 느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 할 수 있다. 전장의 황폐함과 비교되어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기쁨의 노래로 시작되고있다(1-2절). 그 노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방을 두려워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3-4절). 소경, 귀머거리, 다리를 저는 자 등으로 대변되는 유다의 무능력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5-7절). 특별히 포로들의 기적적인 귀환의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받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8-10절). 이사야의 예언은 늘상 하나님의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방 나라의 핍박에 의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결국 새로운 나라로 다시금 일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기					
1		메시아 왕국의 영광 (1) 본장은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1부:1-35장, 2부:36-39장, 3부:40-66장), 제1부의 결론에 해당되고, 제1부 중 중요한 대목마다 언급되던 한 의로운 왕 메시아와 그의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은 평화의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중 그 절정에 해당하는 예언을 줌 (2) 1-10절: 회복된 시온의 영광에 대한 환희의 노래와 핍박받은 자에 대한 위로와 대적에 대한 보수 약속을, 영적인 병자들의 치유와 영원한 평화와 안정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함 (3) 생동감이 넘치는 시어들이 가득한 서정적 예언시인 본 예언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세상의 메마른 삶 속에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삶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 일듯이 일으켜 준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핵심 단어		4절. 겁내는 자. 간교와 꾀술에 능한 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심판에 직면하여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산헤립의 유다 침공과 협박	날짜 : 10월 23일
찬양	주님 찾아 오셨네 (찬송가 534장 / 통일 찬송가 324장)		
통독	이사야 36장		
본문 내용	본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서술을 담고 있다. 마치 열왕기나 역대기의 기록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본장은 앗수르 시대의 종말과 바벨론 시대의 시작을 묘사하고 있다. 즉 산헤립 2차 침공 당시의 전장의 긴박한 상황을 다소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전체 내용을 통해 이방 신을 등에 얹은 랍사게 일행과 히스기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먼저 앗수르 왕은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 선전 포고를 하고 있다(1-3절). 또한 랍사게는 실제 싸움을 피하고 위협으로 성을 탈취하기 위하여 히스기야의 사신들에게 굴욕감을 주기도 한다(4-20절). 이어 사신들이 수치와 분노로 인해 옷을 찢고 나아가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비아냥거림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1-22절).		
생각해보기			
1	랍사게의 모독 (1) 제36-39장까지는 여호와와 절대 주권 및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의 신실성을 예증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사적 기사임 (2) 1-10절: BC.701년 앗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입하여 대부분의 성읍들을 정복한 후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공격을 앞둔 상황에서 산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협상을 위해 자신들에게 나아온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을 조롱한 사실을 기록함 (3) 11-22절: 백성들이 듣게 될 것을 염려한 유다 사신들이 랍사게에게 유다 방언으로 조롱의 말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랍사게가 이를 거절하고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히스기야와 여호와를 믿지 말고 앗수르 왕에게 항복하라고 위협하며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자 유다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통탄해 하며 이상의 모든 사실들을 고함 (4) 랍사게처럼 사단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약점들을 찾아내어 공격해 올지 알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여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		
핵심 단어	4절. 의뢰하니. 자신의 목숨까지도 매어 말길 만큼의 확고 부동한 신뢰를 의미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날짜 : 10월 24일
찬양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478장 / 통일 찬송가 78장)		
통독	이사야 37장		
본문 내용	앗수르의 위협적인 말을 접하게 된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본장에서 확실한 대응책을 보여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타난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먼저 회개의 모범을 보이고 이어서 신하들에게도 회개하도록 촉구했으며 나아가 선지자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 그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사야는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는 예언을 하게 된다(1-7절). 때를 같이 하여 앗수르는 구스 왕의 침입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는 회군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늦추지 않는다(8-13절). 산헤립의 위협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기도는 이방인이 의지하는 거짓 신에 대해 하나님의 권능이 월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14-20절). 이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주는데 그것은 오만한 산헤립을 향한 책망과 저주,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21-38절). 전체적으로는 산헤립의 허망한 위협과 히스기야의 능력 있는 기도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생각해보기			
1	히스기야의 간구 (1) 1-7절: 랍사게의 오만 불손했던 행위를 보고받은 후 히스기야는 과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협을 벗어나려던 생각을 모두 버리고,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여호와와 전으로 들어가며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함. 이러한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며 이사야를 통해 앗수르 군대와 그 왕들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예언을 주심 (2) 8-20절: 앗수르 왕 산헤립은 자신의 뜻대로 유다가 쉽게 항복하지 않자 더욱 강경한 어투의 편지로 협박함. 히스기야는 요동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올려놓고 앗수르 군대의 멸절과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천하만국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림 (3) 21-38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 여호와를 모독하고 교만했던 산헤립에 대한 심판 예언과 유다 백성에 대한 축복회복 및 보호를 약속하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앗수르 군대 18만 5천명이 괴멸되고 산헤립 역시 자기가 섬기던 우상 니스룩 신당에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살해됨 (4)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축복을 입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핵심 단어	3절. 능욕의. 앗수르인들이 하나님을 훼방하는 신성 모독의 잘못을 범함을 가리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